

약수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위원회위원장

유치원장



회의 일시 및 장소 2018년 8월 28일(화요일) 저녁 18시30분, 유치원 1층 빛반 교실

참석 위원 학부모위원(5명) - 박미현, 박정수, 장혜인, 오유미, 장현수
 교원위원(4명) - 양순실, 조문숙, 마혜란, 백윤미

상정안건

1. 유치원 교사교체에 대한 안내 및 자문요청

- 위원장: 원장님께서 긴급소집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떤 안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원장: 그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바쁘신 중에 긴급히 요청한 오늘 회의에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죄송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개인사정으로 별반 담임선생님과 행복반 담임선생님께서 8월까지만 근무하시고 9월부터 새로운 선생님께서 근무하시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에서도 담임교사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흔한 일이 아니라,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이에 안내를 하고, 유아들의 안정된 유치원 생활을 위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외엔 이에 대해 공지한 적이 없는데, 일반학부모님께서 혹시 우리 담임선생님은 아닌지, 전화로 여쭙보셨어요. 뭔가 결정을 하고, 공지를 하기 전 이렇게 주변에 알려지는 것은 오해와 혼란이 있을 것 같아 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그러게요. 신경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알리신 위원님 계신지요?
- 위원들:.....
- 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아니실 수도 있으나, 조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이유로 그만 두시게 되는 건가요?
- 원장: 별반 선생님께서는 위낙에 몸이 약하셨던 것 같습니다.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회복이 잘 안돼서 병원에서 일을 쉬는 쪽으로 권고하신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그리고 행복반 선생님께서는 공부에 비중을 더 두는 쪽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직 젊은 선생님이라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텐데, 제가 해라 말아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 교원위원: 그랬었군요. 건강에 관한 부분이라면 어려우실 수 있죠.
- 원장: 그래서 별반 유아들은 어린 유아라 더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이에 선생님을 새로 임용해 8/30, 8/31 2일간 함께 생활하며 인수인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복반은 전에 우리 유치원에서 2년간 근무하셨던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하시는 일의 마무리가 9/15까지라 부득이 9/17부터 근무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2주간의 공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여쭙니다. 일단 선생님들과 의논한 바로는 원감님이 해 주시거나, 교육과정반 선생님들이 하루씩 돌아가며 해주시는 것, 대체교사를 채용해 하는 것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방법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 10월에 유치원기관평가도 있고 유치원 업무의 전체적인 조율을 위해 원감님은 어려우실 것 같구요, 제 입장에서는 교육과정반 선생님들께는 부탁드립니다.

- 교원위원: 저희는 담임이 바뀌는 별반 유아들 중에 3명이 행복반이어서 걱정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원내에서 매일 보는 선생님들이 해주면 아이들에게 변화가 좀 덜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 ○○○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전에 수업하시고 오후에 하시면 힘드실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힘들면 교육에 소홀해 질 수도 있으니,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 위원장: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종일반 보조선생님이 2주간 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한테 참 잘하시고, 아이들도 좋아하더라구요. 익숙하니 좋지 않을까요? 대신 교육과정반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관심 가져 주시구요.
- 원장: 오전에는 빛반 보조, 오후에는 종일반 보조하시면서 이쪽 관련 공부도 하고 계시고, 능력도 있으신 분인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라...부담스러워 하시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긴 합니다.
- ○○○위원: 작년의 경우, 보조교사가 바뀔 때 아이를 통해서 안 것은 좀 아쉬웠습니다. 안정된 다음에 공지하시려고 했던 것은 추후 위원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공지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원장: 그러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에서 자문을 구하고, 내일은 별반, 행복반 학부모님들께 개별 안내문을 배부하고, 금요일 통신문에는 전체 공지할 예정입니다.
- 간사: 마침 토요일에 부모연수가 있어 시작 전인 10시에 별반 새로 오시는 선생님을 별반 학부모님들께 소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 위원들: 부모님들 입장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안심도 되구요.
- 위원장: 네.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 위원들: 네. 없습니다.
- 원장: 그러면 오늘 해 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여 내일 안내문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혹시 추가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 핸드폰으로 내일 12시까지 의견주세요. 있으시면 원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원장: 감사합니다.
- 위원장: 그럼, 오늘은 긴급소집으로 교사교체와 관련된 안전만 나누었으므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기 록 자 : 조문숙(인)